투어 번호
LKYNYYJCNX

휴식과 이완 (15일)

15일 · 14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5일 투어는 서해안의 네고롬보에서 출발하여 문화삼각지의 고대 왕국들을 거쳐 산악지대로 내려가고, 남부 사파리 공원과 해변을 통과한 후 콜롬보로 돌아오는 스리랑카 종단 투어입니다. 개인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됩니다. 아누라다푸라, 폴론나루와, 시기리야, 담불라, 캔디와 누와라엘리야의 산악 마을, 호튼 평원과 엘라, 미너리야와 얄라에서의 사파리, 갈레로의 당일 여행과 함께 우나와투나에서의 해변 휴식이 포함됩니다.

여행객들은 섬의 다양한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바위 요새, 차 재배지와 고지대 풍경, 두 번의 별도 사파리에서의 야생동물 관찰, 맹그로브 숲을 통과하는 강 보트 투어, 그리고 남부 해안에서 며칠간의 휴식 후 출발하게 됩니다. 투어의 속도는 관광 일정과 우나와투나에서의 휴식일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습니다.

투어는 영어를 구사하는 운전기사 가이드와 함께 개인 전용 차량으로 진행되며, 운전기사는 관광지 간의 이동과 일정을 관리하여 여행객들이 볼거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네곰보

투어는 해변과 오랜 전통의 어업으로 유명한 서해안 도시 네곰보에서 시작됩니다.



네곰보 해변

네곰보의 모래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어업 활동을 구경해 보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해양 스포츠와 다이빙

해양 스포츠를 즐기거나 앞바다의 산호와 해양 생물을 감상하는 다이빙을 해보세요. 이곳에는 50년 된 난파선이 있어 다양한 어종의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Day 2 네곰보 → 판두와스누와라 → 아누라다푸라

내륙으로 이동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옛 수도를 방문한 뒤, 천 년 이상 스리랑카의 고대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에 도착합니다.



판두와스누와라

12세기 수도였던 이곳의 유적을 둘러보세요. 불탑, 불상당, 회의장, 성채 등이 남아 있습니다. 성채 벽 바로 바깥에는 복원된 옛 불치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왕궁 유적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집니다.

L Manju · CC BY-SA 4.0



아누라다푸라

10세기까지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광대한 폐허 도시를 걸어보세요. 불탑과 사원 건물, 연못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였던 제타와나라마 불탑, 신성한 스리 마하 보디 나무, 그리고 아바야기리 사원 유적이 있습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3 아누라다푸라 → 담불라

이날은 스리랑카 불교의 발원지와 거대한 입상 불상, 그리고 담불라 석굴 사원을 둘러봅니다.



미힌탈레

데바남피야티사 왕이 승려 마힌다를 만나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진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세요. 산기슭의 사원 유적과 마힌다가 머물렀던 동굴, 그리고 암바스탈라 불탑을 비롯한 역사적인 스투파들을 볼 수 있습니다.

Dennis Sylvester Hurd · CC0



아우카나 불상

하나의 암석을 깎아 만든 12미터 높이의 입상 불상을 감상하세요. 뒷부분의 가느다란 지지물 하나를 제외하면 어떤 받침도 없이 서 있습니다. 섬세하게 표현된 가사의 주름과 깔끔하게 조각된 몸체가 돋보이며, 주변에 일부 무너진 구조물들은 과거 이곳에 불상당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Carlos Delgado · CC BY-SA 4.0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석굴 사원에 들어가 보세요. 부처의 생애를 묘사한 고대 벽화와, 신성한 왕의 동굴과 대왕의 동굴을 포함한 다섯 개의 주요 동굴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석굴 사원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4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를 방문한 뒤, 오후에는 민네리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스리랑카의 두 번째 주요 수도로 번영했던 이 도시의 유적을 걸어보세요. 주요 명소로는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폴론나루와의 황금기로 평가받는 파라크라마바후 왕과 연관된 석상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관목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을 사파리로 둘러보세요. 코끼리는 물론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한 번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을 볼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담불라 →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캔디로 가는 길에 시기리야 바위 요새에 오르고, 저녁에는 전통 문화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카샤파 왕을 위해 지어진 5세기 바위 요새에 올라보세요.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장식된 계단을 지나 입구로 들어갑니다. 유명한 변색되지 않는 프레스코 벽화와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를 볼 수 있으며, 정상에 위치한 옛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Wrobell · CC BY-SA 3.0



캔디 문화 공연

불춤, 칼춤, 그리고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캔디안 댄서들을 포함한 한 시간짜리 전통 공연을 감상하세요.

Arian Zwegers · CC BY 2.0

Day 6 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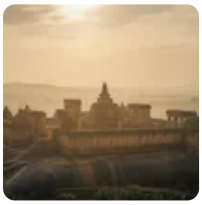
주변 언덕의 목조 조각 사원부터 도시의 가장 신성한 사원까지, 캔디의 사원들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엠베케 사원

목조 조각으로 유명한 이 사원을 방문하세요.

Cherubino · CC BY-SA 3.0



가다라데니야 사원

역사적인 이 사원을 거닐며 그림과 조각들을 감상하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랑카틸라카 사원

당시 기준으로 건축적으로 앞서 있던 이 사원을 방문하세요.

BluesyPete · CC BY-SA 3.0



데갈도루와 석굴 사원

정성스럽게 복원된 벽화로 가득한 석굴 사원 내부를 감상하세요.

A.Savin · FAL



불치사

부처의 신성한 치아 사리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해 16세기에 세워진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하세요. 붉은색, 크림색, 검은색으로 칠해진 복도와 홀을 지나며 조각된 기둥과 황금 불상들을 감상하세요.

A.Savin · FAL

Day 7 캔디 → 누와라엘리야

식물원과 차 농장을 거쳐 옛 영국 식민지 시절 휴양지였던 누와라엘리야로 향합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식물원을 걸어보세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요 명소로는 캐논볼 나무,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 그리고 오를 수 있는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차 공장과 농장

차 공장과 농장을 방문해 실론 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세요. 차는 1824년 왕립 식물원에 처음 심어졌으며, 1852년 제임스 테일러가 도착해 캔디 근교의 룰레콘데라 농장에 정착하면서 상업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와라엘리야

19세기와 20세기 초 영국인들이 즐기던 고급 휴양 도시를 둘러보세요. 아기자기한 코티지와 빌라, 대저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을 방문하고 퀸 빅토리아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숫가에서 여유를 즐겨 보세요.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8 누와라엘리야 → 호튼 플레인스 → 누와라엘리야

고산 초원과 운무림이 펼쳐진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으로의 당일 여행입니다.



호튼 플레인스 국립공원

오히야에 위치한 이 공원을 방문해 고산 초원과 운무림을 감상하세요. 월드 엔드 절벽에서 펼쳐지는 전망과 베이커스 폭포의 물보라를 즐기고, 희귀 고유종 동물을 관찰하거나 이 지역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Faslan at en.wikipedia · CC BY-SA 3.0

Day 9 누와라엘리야 → 엘라 → 얄라

엘라로 이동해 대표적인 명소들을 도보로 둘러본 뒤, 남쪽의 얄라로 향합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차밭과 바위 지형을 지나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세요.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나인 아치스 브리지

이 다리를 걸으며 건설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Deitel55 · CC BY-SA 3.0



데모다라 기차역

독특한 루프형 선로 구조로 알려진 이 역에서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A.Savin · FAL

Day 10 얄라 → 우나와투나

남해안으로 향하는 길에 얄라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깁니다.



얄라 국립공원 사파리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국립공원에서 사파리를 즐겨보세요. 표범, 야생 물소, 늘보곰, 코끼리 무리를 비롯해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Ranmith Welikala · CC BY-SA 4.0

Day 11 우나와투나

스리랑카의 유명 해변에서 보내는 자유 일정입니다.



우나와투나 해변

낮에는 햇살과 부드러운 모래, 바닷바람을 느끼며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석양이 질 때는 바다 위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세요. 거북이가 알을 낳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제트스키, 윈드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2 우나와투나

과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해안 도시 갈레로의 당일 여행입니다.



갈레 요새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를 방문해 보세요. 해양 박물관, 갈레 국립 박물관, 등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네덜란드식 이름을 간직한 자갈길을 걸으며 이 도시의 식민지 시대 역사를 느껴보세요.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3 우나와투나

우나와투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또 다른 자유 일정입니다.



우나와투나 해변

낮에는 햇살과 부드러운 모래, 바닷바람을 느끼며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석양이 질 때는 바다 위로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하세요. 거북이가 알을 낳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제트스키, 윈드서핑 같은 해양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Bernard Gagnon · CC BY-SA 3.0

Day 14 우나와투나 → 발라피티야 → 콜롬보

마두 강에서 보트 투어를 즐기며 콜롬보로 돌아가, 수도에서 저녁 시간에 시내 관광을 합니다.



마두강 보트 투어

강의 맹그로브 수로를 보트로 돌아보며 일광욕을 즐기는 악어와 물왕도마뱀을 관찰하고, 계피를 수확하는 작은 섬을 방문하며, 물새들을 구경하고 피시 마사지도 체험해 보세요.

SUPindia · CC BY-SA 4.0



콜롬보 시티 투어

옛 등대, 옛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 박물관 등 수도의 역사적인 명소들을 둘러보고, 인디펜던스 스퀘어의 상점과 부티크를 둘러볼 시간도 가집니다.

Gihanud2001 · CC0

Day 15 콜롬보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